

동북아 경제통합의 가속화 : ECFA 체결과 중화경제권 구축을 중심으로*

황 기 식

동아대 동북아국제대학원 국제학과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동북아 경제통합의 가능성 |
| II. 선행연구 | V. 결론 |
| III. 중화경제권 | 참고문헌 |
| 1. 화교네트워크 | Abstract |
| 2. 중국-대만 ECFA | |

Key words(중심용어): 중국-대만 ECFA(China-Taiwan ECFA), 경제협력기본협정(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중화경제권(Greater China Economic Zone), 화교네트워크(Overseas Chinese Network), 동북아경제협력(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위안화(Chinese Yuan)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변화와 경제협력의 과정과 그 뒷면에 숨어 있는 중국의 대중화경제권 건설이라는 목적을 살펴 보면서 동북아 지역경제통합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화교네트워크, 다시 말해 중화경제권이 글로벌 경제권이 되려면 먼저 동북아시아에서 중화경제권을 형성하여야 하고 동북아 지역의 중화경제권 형성은 동북아경제통합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체되어있는 동북아경제통합의 가능성이 중국이 주도하는 ECFA 체결이후 중화경제권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위안화 기축통화화가 중화경제권 구축과 나아가 동북아경제통합의 밑거름이 될 것임을 덧붙인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중화경제권 구축은, 정체되어 있는 동북아지역통합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이다. 경제협력을 체결한 것은 중국의 중화경제권 구축 전략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경제협력을 통한 지역통합은, 양안 간 정치적 갈등의 골이 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치·외교적 목적으로 극복했던 대만을 통해 알 수 있듯 동북아 지역에도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동북아 지역통합을 촉진시키는 방법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I. 서론

미국과 함께 G2의 반열에 나란히 오른 중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강대국임에 틀림이 없다. 지난 30년 동안 중국을 경제대국으로 이끌고 연 10%대의 꾸준한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게 한데에는 화교 자본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작용했는데 중국에 투자된 외국인 자본의 70% 이상이 화교자본으로 화교기업이 중국의 경제성장을 결정적으로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박한진 2003). 중국경제에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서도 화상들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홍콩과 대만의 자본 유입은 중국의 성공적인 경제발전과 체제전환을 위한 필수조건이었다(오승렬 2007, 287). 자국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 화교자본을 중심으로 중국은 중화경제권의 확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2010년 체결한 중국-대만 간의 경제협력인 ‘경제협력기본협정(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ECFA)¹⁾이다. 대만은 화교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다. 500대 화교기업 중 233개가 대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화교자본이 풍부한 대만과의 공식적인 경제협력은 중국의 중화경제권이 한 단계 더 확대될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립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양안관계는 최근 10년간 상호간 이익을 목적으로 경제적 교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대만은 성장촉진 효과, 산업구조 전환 효과, 대중화(大中華)경제권²⁾을 이용한 금융위기 탈피 효과를 목적으로 경제교류를 추진했다. 중국 역시 대만 흡수통일 등을 목적으로 양안의 경제교류에 적극적이었고 자본조달과 기술의 이전효과, 중국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경제적 제재를 타파할 수 있는 효과, 대만의 분리 독립 억제, 대만·홍콩과 연계하여 대중화경제권 형성을 목적으로 경제교류를 추진했다. 중국-대만 간 ECFA 체결은 그 동안 중국이 막대한 화교자본과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추진해 왔던 대중화경제권의 출범전략이 확대·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다.

〈표 1〉 500대 화교기업 국가별 분포

지역	기업 수(개)	시장점유율(%)
대만	233	40.18
홍콩	137	38.02
싱가포르	63	10.37
말레이시아	46	6.27
필리핀	13	1.24
태국	11	2.66
인도네시아	7	1.2

- 자료 출처 : 홍원석 2005

- 1) 경제협력기본협정(ECFA)는 중국어로 양안경제합작가구협의(兩岸經濟合作架構協議)이며 2010년 6월 29일에 충칭에서 양안의 대표단들이 이 협정에 서명했다.
- 2) 중국은 대중화경제권을 구축하여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대중화경제권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구분할 수 있는데 큰 의미로는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작은 의미로는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를 포함하는 경제권을 의미한다.

〈표 1〉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500대 화교기업의 국가별 분포는 모두 동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만 40.18%, 홍콩 38.02%로 500대 화교 기업 중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화교기업이 무려 78.2%를 차지하고 있다. 화교자본을 이용한 중국의 중화경제권 구축 전략이 대만과 홍콩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대만과 중국은 정치적인 갈등에도 불구하고 경제협정을 맺음으로써 양안 간 통합의 가능성까지 열어두었다.

중국은 WTO 가입 후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을 연결하고, 중국경제권에다가 중국계 민족이 대다수인 싱가포르 및 중국계 화교들의 경제력이 국가 경제력의 상당부분 이상을 좌우하는 동남아시아 국가의 화교자본을 연결하는 민족적 경제협력관계를 진행시켜왔다(김재기 2005, 169). 여기에서 화교네트워크³⁾를 이용하여 동북아 지역과 동아시아 지역을 중화경제권 안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중국의 전략을 엿볼 수 있다. 중국의 중화경제권 구축은 위안화 국제화 전략의 일부분으로 바라볼 수 있다. 위안화 국제화 전략은 여러 가지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 G2로서 중국의 부상과 G20 회의에서 중국의 발언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중국이 달러와 미국국채 보유국 세계 1위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2009년을 기준으로 세계 1, 2, 3위의 은행을 중국공상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은행이 각각 차지한 것이다. 언급한 사항을 살펴보면 중국의 이러한 전략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이 2009년 7월부터 적극 추진 중인 위안화 무역결제 규모는 2010년 1분기 183억 5천만 위안에서 3분기에는 1,264억 8천만 위안으로 급증했고, 향후 5년 안에 위안화 무역 결제 규모가 2조 달러에 달해 달러화, 유로화와 함께 3대 결제통화가 될 것이라는 HSBC의 전망을 살펴보면 더욱 명백해 진다(이치훈 2011, 53).

중국과 대만은 각국이 처한 상황에서 그들의 이념과 전략이 상호 결합한 협력의 결과로 ECFA를 성공시켰다. ECFA를 통해 대만은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확대하려는 전략이고 중국은 대만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대만의 기술이전을 피하려는 전략이다(지만수a 2010, 1). 대만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ECFA를 체결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중화경제권 구축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장기간 지속된 양안 간의 갈등도 통합의 길목으로 들어설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변화와 경제협력의 과정과 그 뒷면에 숨어있는 중국의 중화경제권 건설이라는 목적을 살펴보면서 동북아 지역경제통합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동북아시아 경제협력과 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떻게’이다. 본 연구는 그것을 ‘중국’이라는 주체와 ‘중화경제권’이라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1997년 홍콩반환을 계기로, 2009년 대만과의 ECFA 체결을 계기로 중화경제권의 크기를 점점 확대해가고 있다. 또한 위안화를 기축통화(Key Currency)로 만들기 위해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통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임양택 2009, 78). ‘유대인 네트워크’가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경제권을 좌지우지 했던 것처럼 ‘중화 네트워크’가 글로벌 경제권의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볼 수 있을 것이다(김성태 2011).

3) 초국가인종네트워크(transnational ethnic group network)는 국제사회에 영향력 있는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화교 네트워크와 유대인 네트워크가 그 대표적이고 영향력이 있는 집단이다. 이 외에 이탈리아인 네트워크, 인도인 네트워크, 한인 네트워크 등을 들 수 있다.

화교네트워크를 이용한 중화경제권이 글로벌 경제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동북아시아에서의 중화경제권 형성은 필요한 과정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동북아경제통합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제되어있는 동북아경제통합이 중국이 주도로 하는 중화경제권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중국의 중화경제권 구축 이외에도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는 동북아 경제협력에 또 다른 촉진제가 될 수 있다. 한국, 일본 등 이미 동북아 지역의 국가들이 위안화로써 일부 무역거래를 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對)중 무역의존도는 이미 대(對)미 무역의존도를 앞질렀다.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II장에서 중화경제권과 동북아지역협력, 중국-대만의 ECFA 그리고 위안화 국제화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다. III장에서는 화교네트워크, 즉 중화경제권과 중국과 대만의 ECFA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IV장에서는 동북아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위안화 국제화와 관련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V장에서는 결론을 내릴 것이다. 핵심을 요약하자면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중화경제권 구축이 정제되어있는 동북아지역통합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로 작용할 수 있으며 중화경제권은 위안화 국제화의 한 과정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 양안 간 정치적 갈등의 끝이 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경제협력을 체결한 것은 중국의 중화경제권 구축 전략이라는 정치적인 고려가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II. 선행연구

기능주의적 통합이론 시각에서는 안보처럼 국가 주권과 관련한 상위정치 분야에 대한 통합보다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경제처럼 하위 정치 분야에 대한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증가함에 따라 그 파급효과로써 정치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동북아지역통합과 관련한 연구의 대부분은 기능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협력의 주체가 어느 나라가 되었든 그것의 시작은 비정치적, 비군사적인 하위정치 분야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김재기(2005)와 임양택(2009)은 중국이 동북아경제통합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김재기(2005)는 최근 국제관계 변화 속에서 초국가적 민족네트워크인 화교네트워크가 중화경제권 형성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접근하고 있으며, 임양택(2009)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안보와 경제 방면의 중국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김재기(2005)는 중화경제권이 '범중국 공동시장(Chinese Common Market)'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였고 자유무역지대나 공동시장 등과 같이 초국가적 기관에 의하여 관할되는 제도적 통합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협의 또는 조정이 이루어지는 단계의 경제활동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경제협력체로 정의와 이론화가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국지적 경제협력과 지역주의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화교 기업경영방식, 그리고 화교라는 인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제협력체로 규정한다면 그 독특한 형성과정과 성격으로 말미암아 동아시아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다(김재기 2005, 170-171). 임양

택(2009)은 두 가지 차원에서 중국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차원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이고 두 번째는 '동아시아 공동체'를 위한 중국의 역할이다. 그는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을 위한 경제통합의 방향으로 중국이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 : East Asian Free Trade Area)의 구현과 아시아·태평양 통화기금(APMF : Asia Pacific Monetary Fund)의 구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아시아의 무역구조가 미국에서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말한다(임양택 2009, 101-102). 김재기(2005)와 임양택(2009)의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최근 양안관계의 발전, 중국 위안화의 가치상승 등을 함께 살펴본다면 중화경제권이 동북아지역경제통합에 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전망할 수 있다.

진창수(2008)는 동북아 지역협력을 위해서는 경제와 안보가 연계하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비정치적 비군사적 분야의 협력부터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일본과 지역협력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일본이 협력을 통해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이익공동체의 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북아 경제협력이 진전되고 동아시아 경제협력체가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지역 리더십으로서 일본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이미 경제규모 면에서 중국에게 밀려났으며 글로벌 경제위기에 동북아지역 경제를 이끌 능력이 부족하다. 또한 동북아지역통합을 주도하기해 일본은 역사 문제 등 해결하지 못한 갈등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중국과 비교하여 경제통합의 중심이 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에 관한 연구에는 주장환/윤성욱(2009), 심중범(2010), 지만수b(2010)이 있다. 주장환/윤성욱(2009)은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배경과 전략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이 전반적으로 경제력의 성장을 바탕으로, 미국 중심의 일극에서 EU등의 다극체제로의 국제정치경제 질서의 변화를 인지하고, 그 변화를 주동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인민폐 국제화를 준비해왔으며, 미국발 금융위기는 이러한 흐름을 더욱 촉진시킨 계기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심중범(2010)은 중국당국의 위안화 국제화 시도 의도를 파악하고 주로, 위안화 본연의 가치가 국제적 통용화폐로서 합당한지에 관해 분석하고 있다. 그는 유로화, 엔화의 기축통화화 시도에 대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위안화 국제화의 진행방향에 대해 가늠하고 위안화의 국제화가 진행됨에 따라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그는 중국경제가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높아질수록 위안화 국제화 시기는 앞당겨 질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위안화 국제화의 진행 과정상의 장애에 대해 국제적 공조를 통한 전략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심중범 2010, 186). 지만수b(2010)는 G20 회의별 중국의 입장변화를 성장 및 균형, 국제금융체제개혁, 달러체제, 보호주의 관련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그는 G20에서 표명된 중국의 입장은 결국 특수한 발전경로를 걷고 있는 대국형 발전도상국으로서 중국의 경제적 위상과 이해관계에서 출발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에 관한 연구 대부분은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낙관적이다. 이는 중국의 경제력이 세계경제를 이끌 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과정선 상에 있는 중화경제권 구축 역시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이것은 동북아 경제협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양안의 경제관계에 대한 연구는 크게 2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첫째는 중국의 관점으로 중국의 정치 전략에 대한 연구이다. 탈냉전 이후 개혁개방을 거쳐 국제사회에서 급성장한 중국은 미

국의 경쟁자로 부상했고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제치고 새로운 패권국으로 위치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 중에서 우병국(2009)은 세력전이이론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중 간 세력전이 양안관계에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안겨주었다고 분석하고 있고 전가림(2009) 역시 세력전이이론에 근거하여 양안관계의 변화가 동북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둘째는 대만의 관점으로 대만의 경제 전략에 대한 연구이다. 대만은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고립에 대한 탈출구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목표로 했다. 이러한 연구 중에서 윤상우(2010)는 FTA, CEFA 등 동아시아의 지역주의 전개에서 대만이 배제되는 문제와 중국과의 정치적, 경제적 관계에 대처하는 대만의 정책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중국의 중화경제권 구축 전략,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전략, 대만과의 경제관계 변화와 그 의미, 이 세 가지를 동북아 지역경제연합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가장 가능성이 큰 방법일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위 세 가지 중 특히 중화경제권, 즉 화교네트워크를 이용한 중화경제권 구축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대만과의 ECFA 체결 역시 중화경제권의 구축의 일환으로 간주할 수 있고 위안화의 국제화의 과정 위에 중화경제권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현재 정채되어 있는 동북아 경제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방법으로 볼 수 있고 그 주체는 바로 중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Ⅲ. 중화경제권

1. 화교네트워크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화교는 약 6000만 명에 이르며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집단이다(김두기 2003, 81). 대만, 홍콩, 방콕 등 각 도시거점들을 연결하는 그들의 도시권 비즈니스망은 일본이나 미국의 다국적기업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넘어선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유태계와 미국 달러계가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중국계 자본이 유태계 자본을 제치면서 화교자본의 위상이 급부상 중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화교의 투자 자본을 성장 동력으로 적극 활용하였고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화상(華商)이란 중국, 대만, 홍콩 및 동남아시아, 미국, 유럽, 호주 등 전 세계에 널리 퍼져있는 중국계 비즈니스맨들을 지칭하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모인 네트워크 중 '세계화상대회(世界華商大會, World Chinese Entrepreneurs Convention : WCEC)'가 가장 유명하다. 이 대회는 화교들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강화 및 경제적 이익증진을 위해 매 2년마다 개최되는데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세계화상계의 대표적 인물들이 참여해 경제·사회·문화 등 전반적인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다루는 화상들의 '경제올림픽'이라고 볼 수 있다.

〈표 2〉 역대 세계화상대회 개최 현황

차수	일시	개최지	참가자	주제
1차	1991년 8월	싱가포르	750	화인기업의 발전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2차	1993년 11월	홍콩	850	세계경제의 신조류와 화인기업의 역할
3차	1995년 12월	방콕	1,500	화인기업의 교류와 공동발전 촉진
4차	1997년 8월	벤쿠버	1,400	화인기업의 정보화에 대한 대응
5차	1999년 10월	멜버른	800	신시대의 화인 네트워크
6차	2001년 9월	남경	4,700	신세기 화인기업의 공동발전과 전망
7차	2003년 7월	쿠알라 룸푸르	3,500	글로벌 성장과 번영을 위한 협조와 통합
8차	2005년 10월	서울	3,000	화상과의 동반성장, 지구촌의 평화 번영
9차	2007년 9월	오사카	3,600	화합과 윈윈으로 세계에 혜택을 주자
10차	2009년 11월	마닐라	3,000	화상네트워크강화와 세계번영 촉진
11차	2011년 10월	싱가포르		

- 자료 출처 : 저자 작성

1991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1차 세계화상대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0차 세계화상대회가 개최되었고 지난 2005년에는 서울에서 8차 세계화상대회가 개최되었다. 한국은 이 대회를 통해 범 중화경제권의 급성장과 함께 경제력을 갖춘 화상과의 사업협력을 통한 대한 무역흑자 및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기회로 삼고자 했다. 2011년 11차 세계화상대회가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에 있다. 이처럼 20년 동안 이어진 이들의 네트워크는 중화경제권의 확산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 화교네트워크로는 세계화상대회 외에도 세계화인기업가협회(World Chinese Entrepreneurs Association : WEA), 세계화상논단(World Chinese Entrepreneurs Forum : WCEF)⁴⁾, 세계화상투자그룹(世界華商投資(集團)股份有限公司) 등이 있다. 세계화인기업가협회는 2002년부터 매년 '세계화인기업가 국경초대회'와 '중외화인신년리셉션'을 개최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중국 북경을 시작으로 홍콩, 말레이시아, 프랑스에서 세계화상논단을 개최함으로써 전 세계 화상 네트워크를 통하여 각 국가 간 비즈니스 경제교류 활성화, 문화예술교류 및 국제 투자 협력을 촉진시키는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하고 있다. 세계화상논단은 이미 다섯 차례가 개최되었고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되어 전 세계 화상자본 유치 확대와 실질적 비즈니스 매칭 및 커뮤니티구축의 계기의 장이 되었다.

4) 세계화상논단은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다. 이들은 참가업체의 리스트, 비즈니스 정보, 프로그램 정보, 보도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wcek2010.kr/> 이다.

〈표 3〉 세계화상논단 역대 개최지

차수	기간	개최도시
1차	2006년 9월15일-17일	북경(중국)
2차	2007년 8월10일-12일	홍콩
3차	2008년 9월09일-14일	쿠알라룸푸르(말레이시아)
4차	2009년 6월28일-7월09일	파리(프랑스)
5차	2010년10월14일-17일	서울(대한민국)

- 자료 출처 : 세계화상논단 <http://www.wcek2010.kr/>

세계화상투자그룹은 홍콩에서 설립되었고 세계화인기업가협회와 연합하여 전 세계투자기금회, 재단, 금융기구와 상호 협력하고 있으며 전 세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내외 지원 및 투자 기회와 각 지역의 기구를 확대해가고 있다. 이들은 주로 회사의 우수한 시장으로의 발전과 자원 통합, 자본운영, 항목기회, 중외기업 투자용자, 주식, 경제가치가 높은 사업, 문화, 관광항목을 설립하고 경제실체(經濟實體)를 연합하여 최대한 빠르게 자본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처럼 전 세계에서 막강한 규모로 활발히 활동 중인 화교자본은 ‘중국위협론5)’의 등장과 함께 큰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홍콩의 반환에도 불구하고 일국양제(一國兩制)의 특징과 중국-대만 간 정치군사적 긴장관계로 인해 ‘중화경제권’의 제도적 통합에 대한 논의는 그 추동력이 감퇴되었으며, 세 지역 간의 실질적 경제관계 확대의 패턴에 대한 연구가 ‘중화경제권’의 부상에 대한 관심을 대체하는 경향을 보였다(오승렬 2007, 288). 이 시기 대만은 노동력고갈, 임금상승, 후발 개도국의 추격, 대만달러의 평가절상 등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었는데 국제사회의 탈냉전 팽배와 경제 중심으로 세계 흐름이 변하는 분위기 속에서 중국과 대립하는 정책을 계속 따를 수밖에 없었다. 대만 정부는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음을 깨닫고 계엄령을 해제하고 중국으로의 친지방문을 허용했다. 이는 직접적인 경제 교류가 아닌 간접적인 교류를 허용한 것으로 이것은 이후 대만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마련했다.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화교들은 세계경제에 전면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세계에 흩어져 있던 화교들이 뭉치기 시작했고 ‘중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세계경제를 장악할 목표를 세웠다. 양안경제교류에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던 대만정부도 중국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방향을 바꾸었다. 대만의 양안경제교류는 연해지역 중심의 경제투자에서 내륙지역으로 점차 지역을 옮겨가고 노동집약적인 1차 제조업생산 위주 산업에서 3차 서비스 및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것은 중국 시장의 변화를 따른 것으로 경제성장과 기술의 향상으로 인해 수출단계에 접어든 중국과 경쟁을 하기 위한 조치로도

5) 중국견제론으로도 불리는 중국위협론은 탈냉전과 1989년 6월 천안문사태를 계기로 출현하여 1990년대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는 중국이 세계 최대의 인구, 중화사상을 바탕으로 한 민족주의, 경제력의 급성장, 막강한 군사력 등으로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과 다가올 21세기에 무력충돌 같은 극단적 대립을 벌일 것이고 중국이 새로운 패권국으로 부상하여 현재의 status-quo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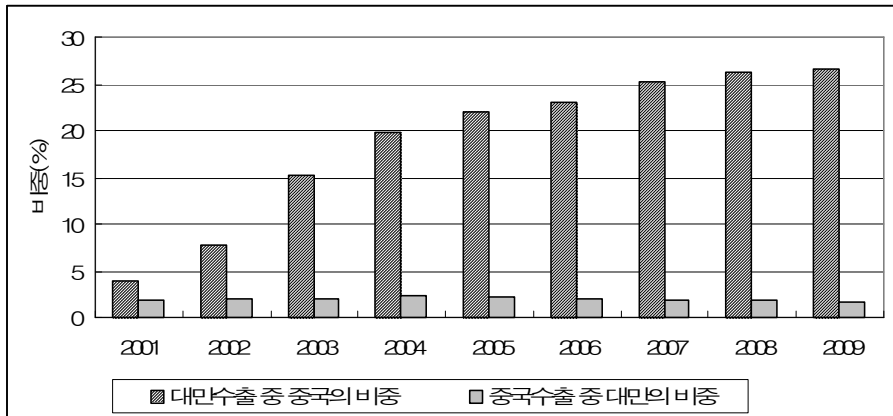
2000년대 대만정부의 독립문제로 중국의 무력도발을 야기하는 등 정치적으로 양안관계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안의 경제적 관계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것은 중국과 대만 정부가 정치와 경제 교류를 분리해서 바라보는 이유 때문이다. 또한 대만 기업이 대만 정부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이유일 수도 있다. 대만의 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중국의 시장을 개척한 것이 아니다. 대만의 민간 기업들은 초창기 경제교류에 있어서 대만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홍콩 등을 경유하여 중국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이어나갔다. 민간 기업들의 교류는 점점 규모가 커져 갔고 이것이 중국과의 ECFA 체결로 이어진 것이다.

1980-1990년대의 '중화경제권'이 중국의 개혁·개방에 따른 중국-홍콩·마카오-대만 경제의 생산요소 결합을 의미하는 현상적 특징을 가졌다면, 2000년대에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중화경제권'은 중국의 적극적 대외전략과 자유무역지대(FTA: Free Trade Area) 등의 제도적 장치에 의해 뒷받침 된다(오승렬 2007, 288).

2. 중국-대만 ECFA

양안의 경제교류가 2010년 9월 12일 경제협력기본협정 발효라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가까우면서도 먼 사이이다. 그들은 정치와 경제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 중국과 대만은 통일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곳으로 달려가는 방법은 각자 서로 달랐던 것이다. 중국은 1949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하나의 중국'을 지향해오면서 '일국양제'를 기본 통일방안으로 삼아 양안관계의 문제를 내정문제로 규정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에 반해 대만은 중국의 '일국양제'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내보이고 '일중일대(一中一臺)'를 내세우고 있다. 또한 '하나의 중국'이라는 생각에 대해서도 중국과 일치하지 않는 입장을 내세워 양안관계는 통일에 대한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이라는 큰 시장을 외면할 수 없는 대만은 현실적인 인식으로 '하나의 중국'에 대해 모호하게 정의를 내림으로써 중국의 신경을 거스르지 않는 방향으로 그들과 경제관계를 유지했다. 대만은 양안 간 경제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아졌다. 2001년 대만수출 중 중국의 비중은 3.9%이고 중국수출 중에서 대만의 비중이 1.9%로 그 차이가 2.0%였지만 그 차이가 급격히 벌어지면서 2005년에는 대만수출 중 중국의 비중이 22.0%이고 중국수출 중에서 대만의 비중이 2.2%로 그 차이가 19.8%로 증가했고 2009년에는 대만수출 중 중국의 비중이 26.6%이고 중국수출 중에서 대만의 비중이 1.7%로 24.9%로 벌어졌다. 중국에 대한 대만의 무역의존도가 얼마나 큰지 잘 알 수 있다.



〈그림 1〉 대만-중국의 의존도 비교(2001-2009)

- 자료 출처 : 무역협회, 대만경제부.

중화경제권 건립과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패권국으로서의 도약을 꿈꾸는 중국의 전략적 접근과 90년대 말부터 지속된 경제위기의 극복을 꿈꾸는 대만의 경제적 접근이 상호작용하여 양안관계는 정치-비정치 분야, 정부-민간분야를 철저히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그 결과 비정치와 민간분야에서 양안관계는 상당히 발전된 교류협력을 보이고 있다. 정경분리는 중국 정부가 더 선호하는 것으로 미국과 함께 'G2'의 영광을 코앞에 둔 중국으로선, 정치적 걸림돌만 제거한다면 양안 간 경제적 정합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중국은 판단하고 있다(박래정 2009, 4). 대만 역시 중-아세안 FTA가 2010년 1월 1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관련업체의 타격이 예상되어 ECFA 체결이 절실한 상황이었다(권혁재 2010, 3). 이렇듯 각국이 처한 상황에서 그들의 이념과 전략이 상호 결합한 협력의 결과가 ECFA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ECFA를 통해 대만은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확대하려는 전략이고 중국은 대만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대만의 기술이전을 꾀하려는 전략이다(지만수a 2010, 1). 대만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ECFA를 체결한 것이다.

양안관계는 중국의 정치적 목적과 대만의 경제적 목적이 상호 결합하여 경제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중국은 대만의 선진기술 도입과 통일에 대한 준비, 동아시아 및 세계의 세력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경제교류를 추진했고 대만은 이러한 중국의 경제통합 전략을 알고 있지만 자국이 처한 경제위기와 민간기업의 활로모색을 위해 경제교류를 추진했다. 이것의 결과가 ECFA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CFA 체결 이후 대만의 경제는 큰 성장세를 보였다. 2008년 -2.14%, 2009년 -1.87%였던 경제성장률이 2010년 중국과의 ECFA 체결이후 10.82%로 급성장한 것이다. 이러한 경제성장은 중국의 기여가 크며, 대만이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동북아 경제통합의 가능성

현재 국제사회의 패권국은 여전히 미국이지만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미국의 패권국 지위에 흔들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미국을 필두로 하는 G7은 2007년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사태가 발생에 따라 국제경제 현안 해결에 한계를 드러냈고, 선진국과 신흥국 간 정책공조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에 각국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G20 정상회의가 출범하게 됐다. 국제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선진국과 신흥산업국이 균형 있게 참여하는 제도가 창설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한국, 중국, 인도 등 후발 경제개발국이 국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된 것으로 국제경제위기는 이제 G7의 힘으로 극복하기 힘들게 되었다. 둘째, 인식의 변화이다. 상호의존의 심화라는 특징을 가진 현 국제경제 위기는 개별 국가 혹은 일부 선진국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없으며, 국제경제현안에 관한 논의는 대표성과 효율성을 모두 겸비한 국제협력의 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국제사회에 확산됐다(정상화 2010, 20-21). 현재 국제사회 전반의 정치경제문제에 대해서는 G2와 G20이 협력하여 해결점을 찾고자 하는 경향으로 미국 지배적인 아닌 중국을 필두로 한 신흥산업국의 경제력이 커졌다는 것을 반영한다(정상화 2010, 22-23).

〈표 4〉 G20 회의별 중국의 입장변화 요약

의제	1차 워싱턴 (2008.11)	2차 런던 (2009.4)	3차 피츠버그 (2009.9)	4차 토론토 (2010.6)
성장 및 균형	위기극복을 위한 거시정책 협조	에너지절감, 환경, 신에너지 등을 신성장동력으로 제시	불균형의 근원은 '南北 간 경제발전의 불균형'	재정, 통화, 무역, 산업, 환경 등 정책의 지속가능성 강조
국제 금융 체제 개혁	개혁원칙 및 개혁분야 제시	구체적 개혁방향 제시 발언권 확대 성과 시간표/로드맵 강조	합의의 준수 강조 개혁후퇴 경계	공평, 공정, 포용, 순차 등 원칙 각국의 특수성 강조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감독 필요성
달러 체제	통화체제 다원화 제기	미국의 책임강조 달러발행에 대한 국제적 통제 필요성 제기	언급 없음	기축통화발행국에 대한 감독 필요성
보호주의 관련	보호주의 방지 언급 WTO/DDA 강조	보호주의 '반대' 구체적 사례 예시 WTO/DDA 강조	공정·자유·개방 원칙 WTO/DDA 강조	보호주의 '반대' 기존 협상안에 기초한 WTO/DDA 타결 강조

- 자료 출처 : 지만수b 2010, 267.

〈표 4〉는 G20 회의별 중국의 입장변화를 후진타오 주석의 연설문을 중심으로 요약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달러 체제에 대한 입장변화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중국은 꾸준히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해왔다. 중화경제권 역시 그 추진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으며 G20 회의에서도 중국의 이러한 노력이 엿보인다. 워싱턴 회의에서 중국은 통화체제 다원화를 제기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했고 나아가 런던 회의에서는 미국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달러발행에 대한 국제적 통제를 제기했다.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 2009년 주요 20개국 G20 회담에서 ‘새 기축통화’에 관해 언급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피해를 입은 개발도상국들은 미국이 세계경제에서 맡고 있는 역할에 만족하지 못하므로 위안화를 새 기축통화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중국 당국은 ‘위안화 기축통화론’을 거론하며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적인 공조체제에서 중국이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심종범 2010, 187). 2011년 G20 파리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국제 통화체제(IMS) 개혁 문제를 의제화해 주요 과제로 다룰 예정으로 중국 위안화를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바스켓에 편입시키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⁶⁾.

〈표 5〉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 전략

1단계	2단계	3단계
결제통화 Settlement Currency	지역통화 Regional Currency	국제통화 International Currency

- 자료 출처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ceo_board/site/trade/05/1221520_1951.j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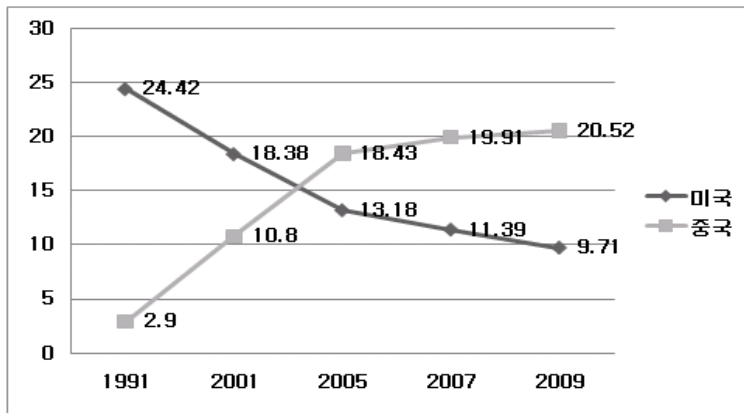
중국은 3단계의 위안화 국제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현재는 ‘부분’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주장환/윤성욱 2009, 59). 위안화의 국제화는 동아시아 지역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홍콩과 대만, 러시아에서 위안화 무역결제 시작하였다. 중국을 필두로 달러체제를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퍼지고 있는데 2008년 푸틴 러시아 총리는 후진타오 중국 총리와 만나 양국 간 무역에서 달러 대신 상대방 통화를 사용하자고 제안했고, 브라질도 최근 중국과 무역결제에 상대국 통화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은 홍콩, 대만 등 중화권과 위안화 사용을 늘리기로 했다⁷⁾. 홍콩금융감독국이 위안화의 절상과 우리나라 원화를 포함한 6개국(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통화의 상관관계수가 0.71에 달한다고 분석한 만큼 향후 상당기간 미국 등 선진국 경기 회복이 더딘 가운데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신흥국들이 글로벌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치훈 2011, 52). 중국과 위안화 무역결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만과 한국, 러시아 등은 이미 중화경제권에 속해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한국과 일본의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도 함께 증가했으며 특히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관계에서 그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6)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2/17/0200000000AKR20110217151700002.HTML?did=1179m>
(2011년 3월 1일 검색)

7)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globaleconomy/357691.html> (2011년 2월 10일 검색)

〈그림 2〉에서 보듯이 90년대에 한국의 대미 무역의존도와 대중 무역의존도를 비교해 보면 거의 10배의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10년이 지나서는 2배의 차이로 좁혀졌고 2005년에는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미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앞서가기 시작하여 최근인 2009년에는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미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보다 2배나 앞서가고 있다. 이처럼 한국은 이제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더욱 깊어졌고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안화의 절상과 우리나라 원화의 상관관계수가 0.71에 달하는 만큼 한국은 대(對)중 무역의존도, 지리적인 위치 등으로 고려해보았을 때 중화경제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한국의 국가별 무역의존도(단위: %)

- 자료 출처 : 관세청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2011820335&code=920501

중국의 경제위상이 크게 강화되고 중국 정부가 위안화 국제화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위안화가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절상될 경우, 중국에 인접한 홍콩, 동남아시아에서 위안화 선호현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일부 동남아 국가들이 외환보유액에서 위안화 비중을 확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홍콩 내 위안화 예금 잔액은 2010년 10월 2,171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보다 3.8배 증가했다(이치훈 2011, 53).

중국 위안화 절상은 한국, 일본 그리고 일부 동남아 국가들에게 매우 크게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다. 1990년대 후반 중국은 위안화의 가치를 유지해 줌으로써 동아시아 경제의 안정에 크게 기여했으며,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는 중국이 민간소비(내수)를 확대함으로써 동아시아 경기회복에 크게 기여하였는데, 한국경제가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부터 빠른 회복 속도를 보이는 것과 일본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탈출하게 된 것도 모두 중국 내수경기 부양정책(4조위안의 재정 지출에 의한 2009년 상반기 소비 15%의 증가)에 의하여 촉발된 한국 및 일본의 대중국 수출 회복 덕분이다(임양택 2009, 78-103). 일본 역시 중국의 영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처럼 중화경제권을 이용한 동북아 경제협력은 전문가관과 연구를 갖춰 추진된다면 다른 방법보다도 빠르고 효율적인 결과를 안겨 줄 것이라고 생각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중국의 중화경제권 구축이라는 전략을 방법으로 한 동북아 경제협력의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동(북)아시아 내에서 세력 확대와 패권지위 확보를 본격화하고 있는 중국의 행보는 견제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 한국은 이미 중국에게 경제적으로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경제규모로도 견주기가 어렵다. 동북아 지역경제협력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에게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하여야 하는 지를 잘 판단하여야 한다.

중국-대만 ECFA 체결은 화교네트워크를 이용한 중화경제권의 확대와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위안화 국제화의 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는 현재 이를 동북아 경제협력으로 연결하고 중화경제권은 동북아시아 공동시장으로 전환한다면 지역통합이 멀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이미 중국에게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으며 중화경제권 안에 속해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일본 역시 중국의 시장과 자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결국에는 중화경제권 안으로 속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한국은 한국경제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동반자적 관계에서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과의 FTA를 조속히 체결해야 할 것이다. 한-중 FTA 공동연구가 2010년 5월에 종료했다. 중국-대만 ECFA가 체결되고 한-중 FTA에 대한 협상이 시작되는 듯 했지만 농업부문의 시장개방 우려로 여전히 진행이 더딘 모습이다. 한국은 산업별 철저한 분석과 협상, 그리고 체결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혁재(2010). “중국-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의 주요내용과 대응방향.” 『SERI 경제포커스』, 제300호, pp. 1-24.
- 김두기(2003). 『자 왔다 통일』, 북랜드.
- 김재기(2005). “중화경제권 화교네트워크의 부상과 조직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정치학화보』, 제12집, 제3호, pp. 167-182.
- 박래정(2009). “차이완(Chiwan) 효과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 LG 경제연구원, pp. 2-15.
- 박한진(2003). “華僑, 그리고 華商 네트워크 : 중국에 투자된 외국인 자본의 70% 이상이 華僑자본 : 華僑기업이 중국의 경제성장을 결정적으로 이끌었다.” World Village. No.3, pp. 200-205.

- 오승렬(2007). “중화경제권’ 형성의 새로운 양상과 특징.” 『중국학연구』. 제41집, pp. 287-311.
- 우병국(2009). “동아시아에서의 미·중 간 세력전이가 양안관계에 미치는 영향.” 『국제정치논총』. 제49집. 1호, pp. 117-143.
- 윤상우(2010).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에서의 대만의 대응과 딜레마.” 『한국과 국제정치』. 제26권. 제2호, pp. 103-133.
- 이윤석(2011). “중국 위안화 전망과 시사점.” 『주간금융브리프』. 제20집. 제1호, pp. 26-27.
- 임양택(2009).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공동체를 위한 중국의 역할.” 『경제연구』. 제30권. 제2호, pp. 75-120.
- 전가림(2009). “양안관계 개선이 동북아 국제질서에 미치는 영향: 세력전이이론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9집. 제1호, pp. 199-229.
- 지만수(2010a). “중국·대만 ECF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Vol. 10. No. 23, pp. 1-11.
- 지만수(2010b). “G20 정상회의에서 나타난 중국의 전략과 경제적 이해관계.” 『현대중국연구』. 제12집. 제1호, pp. 245-283.
- 진창수(2008). “동북아 경제, 안보협력의 연계: 일본과의 사례를 중심으로.” 세종연구소 국제학술회의 발표문, pp. 63-81.
- 주장환·윤성욱(2009). “인민폐 국제화의 정치경제.” 『국가전략』. 제15권. 제4호, pp. 57-80.
- 홍원석(2005). “세계 경제 주무르는 화교의 힘.” 『新東亞』. 제 554호, pp. 308-321.
『경향신문』, “대중 무역 의존도 사상 첫 20% 넘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2011820335&code=920501
- 연합뉴스, “과리 G20 핵심의제는 국제통화제도 개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2/17/0200000000AKR20110217151700002.HTML?did=1179m>
- 전자신문, “중국의 미래와 한국의 국가전략.”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1103090028&mc=m_025_00002.
- 『한겨레』, “‘끈끈해지는 브릭스’ 새 국제질서 꿈꾼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globaleconomy/357691.html>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Abstract

Acceleration of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 With a focus on ECFA and Greater China Economic Zone

Ki-Sik Hwang*

This paper seeks to draw some implications for the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n region with a special focus on the case of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ECFA) between China and Taiwan. It suggests a main research hypothesis such as: - establishing the 'Greater China Economic Zone' including well-organized overseas-Chinese network will be able to accelerate economic cooperation in East Asian region. In spite of many obstacles in cross-straits relations,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has been successfully concluded. The author believes that it has been possible mainly thanks to the strong will of the Chinese government towards Greater China Economic Zone. It can be also helpful for the economic cooperation in the whole Northeast Asian region.

■ 논문접수일 : 2011년 3월 11일, 논문심사일 : 2011년 3월 30일, 게재확정일 : 2011년 4월 13일

*Assistant Professor, Dong-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Northeast Asia International Studies